

WTO/DDA 농업협상, 돌파구 모색중

(주요 4개국 각료 회동, 관세감축방법, 민감품목 등 논의)

2005.9.26(월)
농림부 농업협상과

1. 홍콩 각료회의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동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, EU 등 주요국 각료들이 농업, 비농산물, 서비스 등 DDA 협상 전반에 대한 협의의 가속화

〈최근 주요국 고위급 회의 개최 현황〉

- 미국·EU 각료 회동 (9.22, 파리)
- QUAD 각료 회동 (미국, EU, 인도, 브라질, 9.23, 파리)
- FIPs (QUAD + 호주) 고위실무급 회동 (9.23, 파리)
- 주요국 고위실무급 회동 (9.24, 파리)

2. 오는 10월 중순까지 각료급 회동이 연달아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홍콩 각료회의 시 성과 여부의 운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
- 많은 나라들이 DDA 협상의 양대축인 미국과 EU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
 - 일본 주관 고위급 회동 (9.29~30, 제네바), 미국 주관 주요국 각료회동 (10.10, 쥐리히), 소규모 각료회의(10.12경 제네바 개최 예상) 등 개최 예정

3. 주요국 회동 결과

가. 미국·EU 회동 (9.22)

- 미국·EU 각료 회동에서 획기적인 협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하였으나, 농산물 관세감축 폭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논의
 - 미국은 포트만 통상대표, 조헨스 농무장관, EU는 만델슨 통상장관, 보엘 농업장관 참석

- 관세감축폭 등 구체수치에 대해 미국과 EU간 괴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
- 미국은 야심찬 수준의 관세감축, 민감품목 최소화, 관세상한을 제안 (일부 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최상위 고관세 구간에 대해 90% 관세감축을 주장)
- EU는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 인정,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과 연계 등을 주장
 - 미국 주장하는 새로운 블루박스(Blue Box), 식량원조의 규율을 강화하자고 주장
 - 미국, EU 모두 관세상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

나. QUAD 회동 주요결과 (9.23)

- 농업분야에서는 관세감축공식, 민감품목 등 수치와 관세상한 등에 대해 논의
- EU, 인도, 브라질은 미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블루박스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였으나, 미국은 현재 2007년 농업법 개정 작업이 추진중임을 이유로 블루박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
- EU는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, G20가 제안한 선진국 100%, 개도국 150% 관세상한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 표명
-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에 대해 인도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, 브라질은 신축성 반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
 - ※ 비농산물시장접근(NAMA) 분야에서는 미국과 EU가 관세감축공식으로 단순한 스위스 공식을 주장하였으나, 인도와 브라질은 이에 반대하고 NAMA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
 - ※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과 인도가 주도하여 핵심그룹(core group)을 만들기로 의견조율

4. 협상 전망

- 가. DDA 협상 진전의 관건은 농업협상 분야인 바, 향후 농업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
- 미국, EU간 각료급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여타국과도 각료급 협의 추진 전망
 - 미국의 블루박스에 대한 EU의 공세가 강화되는 한편,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
 - 미국·EU 양국 모두 관세감축폭 등 구체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
- 나.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,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, 양측 모두 선불리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다. 그러나,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, 주요국간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



- 라.우리로서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협상에 대응하되 관세감축공식, 민감품목, 관세상한 등 핵심쟁점에 협상력 집중 예정
- 협상 급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

참고 : DDA 협상관련 미국과 EU내 동향

DDA 협상관련 미국과 EU내 동향

1. 미국내 동향

- 가. 미국은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(TPA)이 2007년 6월말 만료되므로 내년 말까지 DDA 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07년 초에 의회에 상정하기를 희망 (포트만 미 무역대표 9.21 미 상원 농업위 청문회 발언)
- 나. 미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DDA 협상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얻어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
- 9.8. 미 의회 의회감독기구(COG), 미국이 DDA 협상 국내보조에서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
 - 챔블리스(Chambliss, 공화당, 조지아), 굿라트(Goodlatte, 공화당, 버지니아) 상?하원 농업위 의장,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국내보조 분야 양보 반대
 - 미국이 현재 2007년 농업법 개정 작업 추진중이므로 당분간 국내보조 분야에 대해 양보하기는 곤란
 - DDA 협상 진전을 위해 EU가 먼저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보 촉구
 - 9.22. 미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챔블리스 상원 농업위 의장, DDA 농업협상에서 대폭적 시장개방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촉구
 - 미국은 농산물 무역흑자를 보는 농산물 최대수출국으로, 수출시장 확대가 미국 농업의 활로
 - 2004년의 경우 농산물 610억불 수출, 540억불 수입
 - 미국내 농지 3ha중 1ha는 수출농산물 생산에 이용
 - 일부 의원들은 DDA 협상에서 EU, 스위스 등이 미국의 식량원조를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

2. EU내 동향

- 가.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DDA 협상에서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었으며, 향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
- 9.19 EU 농업각료회의에서 프랑스, 이태리, 스페인 농업장관들은 집행위원회가 수출보조 철폐, G20 제안에 기초한 관세감축을 약속하는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으며, 반면 미국, 호주, 캐나다 등은 수출신용, 식량원조, 국내보조 등 여타 분야에서 EU와는 달리 양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